

대구고등법원 2023. 4. 13 선고 2022나24965(본소), 2022나24972(반소) 판결
[계약금반환 · 건축설계비 청구]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23. 4. 13 선고 2022나24965(본소), 2022나24972(반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7. 22 선고 2021가합3069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채해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재범

변론종결 2023. 3. 9.

판결선고 2023. 4. 13.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7. 22. 선고 2021가합3069(본소),
2021가합3076(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는 설계변경허가를 얻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주식회사 F의 기존 건축허가 시 제출된 설계도면 138장을 바탕으로 설계변경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설계 초안에 불과한 65장의 이 사건 공사설계도면만을 작성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등을 하였다가 건축인허가 취하원을 제출함으로써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못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중단되었고, 이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업 부지를 매수한 N과 다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의뢰한 건축물을 설계하여 설계도서를 제공하는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모두 제공하였으며, 달리 피고의 책임으로 설계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주식회사 F가 건축허가 당시 제출한 설계도면이 138장임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설계도면도 138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F는 2008년경 운동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반면, 원고는 골조공사가 되어 있던 미완성 건물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설계도면의 장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건축인허가 취하원을 제출함에 있어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중단되었다가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병수, 판사 왕해진, 판사 송민화